

## 아랍 스프링 이후 사우디 이슬람 극단주의의 등장과 정부의 반테러 정책\*

| 황 병 하\*\* |

Hwang, Byung-Ha

### **Emergence of Saudi Islam's Radicalization After Arab Spring and Saudi Government's Anti-Terrorism**

The Saudi state's legitimacy is built on the two important actors. One is the political basis of Al Saud family's rule, the other is the religious basis of Wahhabism's influence. In the process of Saudi Islam's radicalization, many ideologies have been appeared in Saudi, such as Salafism, Wahhabism, Islamism, Jihadism, Reformism, and IS Wahhabism.

After Arab Spring in 2011, Saudi faced two new challenges. One stemmed from the MB's electoral victory in Egypt, the other emerged from conflicts in Syria and appearance of IS. The former was regarded as a political threat, the latter was regarded as a security threat.

Saudi Islam has been radicalized since 1979 through various activities of Saudi MB and Sahwa movement, and the government's anti-terror activities has been strengthened since 9/11 terror in 2001. In the result of 9/11 and AQAP activities, the Saudi's anti-terrorism law was established in 2005.

IS has declared war against Saudi Arabia since late 2014, and attacked Saudi area many times. IS has declared Caliphate, and claimed the true representative of Wahhabism. IS has argued to be inspired by the first Saudi-Wahhabi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교수, E-mail: bhhwang@chosun.ac.kr



state(1744-1818) which engaged in Jihadism and totally anti-Shi'ism. The IS appearance has cast a debate on the Saudi's political and religious legitimacy, including Wahhabism and political leadership.

In regard to the Saudi's counter-terrorism system, the full-scale activities of IS in Saudi will take long time, but the debate on Wahhabism between Saudi regime and IS will be continued. And the Saudi regime's support for Wahhabism will be intensified, because it has given the Saudi rulers the political legitimacy.

**[Key Words: Saudi, Wahhabism, Radicalization, Anti-Terrorism, MB, Sahwa, IS]**

## I. 서론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와하비주의(Wahhabism)의 발상지이며, 사우드 왕가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창설하였다. 이는 와하비주의의 정통성과 합법성이 사우디로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사우드 왕가는 와하비주의의 정통성을 근거로 정치적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2016년 IS는 와하비주의의 정통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IS는 와하비주의의 21세기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며 사우드 왕가의 정치적·종교적 합법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와하비주의가 더 이상 사우디의 전유물이 아니며, 와하비주의에 대한 새로운 종교적·정치적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S가 와하비주의의 연속성을 주창하자, 사우디 내에서는 IS에 동조하는 목소리 및 사우드 왕가의 세속과 정치적 실패를 반대하는 극단주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사우디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단주의 성향이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이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극단주의를 이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사우디가 이슬람 종주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순니파 이슬람 전통보수주의 이념의 근원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IS의 주장과 사우디의

극단주의 성향과 관련하여 사우디 정부가 극단주의 이념을 평가하는 잣대는 무엇이며, 사우디에서 극단주의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단서는 사우디에서 이념을 평가하는 잣대가 사우디 종교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사우드 왕가의 통치 권력에 대한 정치적 도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우디에서는 다양한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사우드 가문의 환심을 사고 종교 기관들에 대한 통제권 및 주류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경쟁관계를 벌였으며, 동일한 종교적 입장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Bernard Haykal 2009, 33-57). 역사적 측면에서 사우디 정부는 종교적으로 정권을 공격하거나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대응했지만, 정치적으로 합법성에 도전하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우디는 2011년 아랍 스프링 이후 두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하나는 이집트의 정치 상황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치 상황과 관련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도전은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MB)의 정치적 승리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외부적이고 간접적인 정치적 위협이었지만, 두 번째 도전은 비록 외부적 위협이었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두 가지 도전 모두를 국가 안보에 대한 정치적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여 그 영향력을 차단하려 노력하였다. 사우디 정부의 반테러 정책은 국내외 정치적 위협요인에 의한 국내 불만을 잠재우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 정부는 외부적 위협 요인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의 시아파 소요에 대해서도 반테러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우디 정권에 대한 내부 불만이 점증되고 있는데, 이는 사우디 정부가 반정부 투쟁을 대대적으로 탄압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라크와 시리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순니파 세력이 약화되고 시아파 세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IS를 공격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지원이 사우디의 종교적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14년 현재 사우디 청년 약 2000명 이상이 시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정부 지하드 전선에 합류하고 있으며<sup>1)</sup>, 이들 중 상당수는 IS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ichard Barrett, June 13 2014).

본 논문은 아랍 스프링 이후 사우디 이슬람주의 세력의 반정부 투쟁 현황과 극단주의 흐름, 사우디 정부의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IS에 대한 사우디 내부의 논란을 와하비주의의 합법성과 연속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IS의 극단주의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넘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 정부와 IS 간 와하비주의의 정통성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수 있으며, IS의 사우디 공격 가능성이 고조될 것이고, 이에 대한 사우디의 대응 전략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본 연구는 IS 극단주의의 사우디 공략 가능성과 이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반테러 정책, 그리고 IS와 사우디의 미래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II. 사우디 이슬람의 극단화 과정

사우디 국가의 합법성과 정통성은 두 가지 토대를 바탕으로 정립되었다. 하나는 사우드 가문의 정치적 토대이며, 다른 하나는 와하비주의라는 종교적 토대이다. 문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와하비주의가 국제적으로 극단주의 사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과 사우디가 극단주의 이념의 온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1단계 와하비주의 국가 창설은 무함마드 이븐 압드 알 와합(Muhammad Ibn Abd al-Wahhab, 이하 이븐 압드 알 와합)이 19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에 사우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Muhammad Ibn

1) 사우디 내무부 대변인은 2011년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로 이동한 사우디인의 숫자는 2000명에서 21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Angus McDowall, November 18, 2014).

Saud)의 정치적 지도력을 용인하고 군사 원정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오스만 터키는 1818년 이집트로부터 군대를 파견하여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의 국가를 완전히 파괴하였지만, 이 지역에서 이븐 압드 알 와합의 종교적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2단계 와하비주의 사우디 국가 건설 시도는 19세기 중반에 시도되었지만 실패하였다. 3단계 와하비주의 사우디 국가 창설 시도는 20세기 초에 등장한 압드 알 아지즈 이븐 사우드(Abd al-Aziz ibn Saud)가 사우디 국가 건설을 재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의 후손이었으며, 이븐 압드 알 와합의 신조를 따르고 전파하였다. 1902년 쿠웨이트에 거주하고 있던 그는 리야드를 점령하였으며, 이후 20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는 1932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지하드 팽창주의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슬람을 배반했던 동료 순니파 무슬림과 시아파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Cole Bunzel 2016, 3~6). 이후 사우디의 정치적 합법성은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정립되기 시작했다. 하나는 정치적 합법성인데, 이는 와하비주의에 근거하였다. 다른 하나는 종교적 합법성인데, 이는 사우드 가문의 와하비주의에 대한 동의에 근거하였다.

이렇듯 사우디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지지해준 이념은 와하비주의였지만, 사우디 사회가 와하비주의에 근거하여 완전한 이슬람 공동체(Islamic Community)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다. 사우디 사회는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되었다. 사우디에서 주류 충성파를 형성했던 집단은 순수한 살라피주의자들과 와하비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와하비주의에 근거한 사우디의 국가 정체성을 지지하였으며, 사우드 가문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였다. 사우디 비주류 집단은 이슬람 자유주의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와하비주의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철폐까지 주장하지는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이슬람의 종교적 역할에 여전히 지지를 표명하였다(Stephane Lacroix, Summer 2004, 345).

비주류 이슬람주의 세력에 속했던 사우디 내 MB 세력은 사흐와(Sahwa: 각성, 각각)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였다. 하지만 주류 강경파 와하비주의 세력은 사우디의 전통적인 이슬람주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흐



와 등 개혁 운동을 비난하였다.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주류에 속했던 사우디 지하드-살라피주의(Jihadi-Salafist: JS) 세력은 알 카에다(al-Qaeda: AQ)를 포함한 범국가적 지하드 조직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냈으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세력을 팽창하고 있는 IS(Islamic State)의 극단주의 집단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사실 AQ는 사우디 국가의 합법성을 부정하였으며, 이는 AQAP (Al-Qaeda in Arabian Peninsula)가 사우디에 근거지를 두는 배경이 되었다. 이슬람주의 세력들의 국내의 활동과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우디 정부가 가장 우선시했던 사항은 국가 권력의 합법성에 대한 도전 여부였다.

사우디 반정부 운동의 중심 세력은 사흐와 운동이었다. 사흐와 운동은 압드 알 아지즈 이븐 바즈(Abd al-Aziz ibn Baz, 1999년 5월 13일 사망)와 무함마드 이븐 우사이민(Muhammad ibn Uthaymin, 2001년 1월 10일 사망)이 사망할 때까지 MB와 함께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정권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 하지만 위 두 사람이 사망한 후 사흐와 운동은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사우디 정부는 억압과 탄압에서 선별적 협력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사우디 정권의 와하비주의에 대한 합법성과 통치권력 강화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성공 직후부터 더욱 구체화되었다. 1979년 11월 20일 사우디 정부는 강력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날 아침 주하이만 알 우타이비(Juhayman al-Utaybi)가 이끌었던 수백 명의 종말론적 지하드 전사들이 이슬람 성지인 메카의 카바 신전을 점령하였으며, 마흐디(구세주)가 재림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공격은 사우디 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사우디 정부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전통에 의하면 메카에서의 전투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우디의 일부 군인들은 메카 카바 신전에 대한 공격과 성전 내 전투,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거부하였다(Yaraslav Trofimov 2007, 85-86).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우디 정부는 1979년 11월 24일 올라마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파트와를 발동하여 모스크 내에서의 폭력 사용을 허용하였다. 문제는 메카 점령 사태가 발생한 직후 사우

디 정부가 우타이비의 행동에 대해 외부 단체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저지른 범죄 행위로 비난했다는 점이다. 사실 사우디 성지에 대한 공격과 점령은 사우디 정권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치명적인 사건이었으며, 사우드 가문의 통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사우디 정부는 내부 의구심을 피하기 위해 외부 단체를 배후로 지목했던 것이다. 사우디 정부가 지목한 단체는 이집트의 자마아트 알 무슬리민(Jama'at al-Muslimin)이었다. 이 단체는 알 타크피르와 알 히즈라(al-Takfir wa al-Hijra)로 알려져 있는 단체였다(Alterman & McCants, 154).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우디 정권은 종교 정책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우디 사회의 재 이슬람화 정책이었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국내 종교 기관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아프간 전쟁 이후 새로운 극단주의가 사우디로 유입되었다. 사우디 출신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은 아프간 전투 과정에서 새로운 지하드를 추구하는 지하드주의 네트워크의 수장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글로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우디 정부가 제1차 걸프 전쟁 기간 동안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자 사우드 가문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사우드 가문에 대한 빈 라덴의 비난은 사우디 내 동조 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프간 전선에서 활동했던 많은 사우디 전사들이 사우디의 이슬람을 지키기 위한 열정으로 귀국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 사우디 정부는 국내에서 점증하고 있는 반정부 불신자들의 타크피르(takfir)와 전면전을 벌였다. 이들은 사우디 정권을 반 이슬람 정권으로 간주하였다. 정권에 대한 반대는 서구화에 대한 반대, 반 이슬람적 국내 정치에 대한 반대, 그리고 사우디 주둔 미군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였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결정들이 이슬람 성지와 무슬림들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반정부 운동인 슈아이비(Shu'aybi)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sup>2)</sup> 이 운동의 지도부는 대부분 이전의 사흐와 운동 지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주도의 아프간 군사 작

2) 이 운동의 지도자는 하무드 알 슈아이비(Hamud al-Shu'aybi)와 알리 알 쿠다이르(Ali al-Khudayr) 등이었다.



전 직후인 2000년대에 동력을 모으기 시작한 국내 지하드 운동의 중요한 지원 세력으로 발전하였다(Alterman & McCants, 156).

사우디 정부의 테러 공격과 극단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확산되었다기보다 2003년 5월 12일 리야드 외국인 주거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자살폭탄 테러 이후 점증되기 시작했다. 이 테러의 목적은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수년 동안 전례 없이 많은 테러 공격들이 사우디 전체에서 발생하였다(John Bradley, August 1, 2005). 사우디 내 극단주의 활동이 점증하자 사우디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사우디 정부는 왕가의 적법성에 대한 정치적 비난을 종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국내 테러의 근원을 외국 세력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사우디 정부의 사회 복귀 재교육 프로그램은 의심 가는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을 분석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사우디 정부는 이들을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테러 공격자들 또는 환자들로 묘사했는데, 이는 이들의 반정부 행동에 대한 정치적 관련성을 부정하고 사회적·종교적 도전 세력의 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함이었다.

### III. 사우디 이슬람의 극단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 1. 포용과 공존 정책: 살라피 정적주의와 자유주의

사우디의 대부분 종교학자들은 사우드 가문이 통치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바이아(충성의 맹세)를 당연시하고 있다. 이들은 사우드 가문이 두 성스러운 도시인 메카와 메디나를 공정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 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IS가 이슬람 칼리파제국을 선언하고 사우디의 종교적 역할과 기능을 비판적으로 공격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



다. 일부 학자들은 개인적으로 사우드 왕가의 폐쇄적 통치권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공식적인 설교나 강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 사우디 내에는 살리피주의를 추종하는 정적주의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비정치적 입장을 취하며 설교나 강연에서 정치 관련 내용을 주제로 다루지 않는다. 이는 통치자에 대한 정치적 반발과 비난을 금하고 있는 순니파의 종교적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순니파 이슬람 전통에 의하면, 통치자에 대한 반발은 이슬람 공동체 내의 피트나(fitna: 내분)와 혼란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은 이념에 대한 정치적 입장 표명을 종교적 관행으로부터의 이탈로 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적주의자들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아흘 알 하디스(Ahl al-Hadith, AH: 순나의 종교적 관행을 중시하는 학자들) 집단은 아프가니스탄의 지하드 전쟁에 참여를 촉구했던 사우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였다(Stephane Lacroix, Summer 2011, 85; Jon Alterman & William MacCants 2015, 144 재인용).<sup>3)</sup> 이들은 아프간 사람들이 순니파 이슬람 사상으로 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군사적·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이슬람 사상과 이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Ibid, 148).

한편 아프간에서 지하드 전쟁이 확대되고 지하드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사우디 정부는 지하드주의자들이 전쟁 후 다시 사우디로 귀환할 가능성을 두려워하면서 지하드 전쟁 참여를 거부했던 AH 세력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 정부는 AH 세력들 중 MB와 사흐와 운동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무함마드 아만 알 자미(Muhammad Aman al-Jami)와 라비

3) 아흘 알 하디스는 코란이 명시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순나의 역할을 강조했던 중세 이슬람 학파를 지칭한다. 이 학파는 19세기에 시리아 출신 무함마드 나시르 알 딘 알 알바니(Muhammad Nasir al-Din al-Albani)에 의해 부활되었다. 알바니는 이슬람 4대 법학파의 법해석을 맹종(taqlid)하는 관행을 부정하였다. 대신에 알바니는 코란과 순나에 근거한 독자적 이성주의 해석(jihād)의 사용을 주창하였다. 비록 사우디의 법적 전통은 이슬람 4대 법학파의 해석과 노골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한발리파(Hanbali)의 법해석을 따랐다. 알바니가 맹종 관행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자 사우디 내에서는 많은 반대 세력이 등장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그가 아흘 알 하디스라는 명칭의 추종 세력을 모으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알바니의 입장을 지지했던 아흘 알 하디스 세력은 와하비 종교 운동이나 사흐와 운동과 다른 노선을 걸었다.



의 알 마드칼리(Rabi' al-Madkhali)의 협조를 얻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들을 MB와 사흐와 운동에 대한 대응 세력으로 활용하였다(Stephane Lacroix 2009, 74-77).

사우디 정부는 정통 와하비주의로부터 파생된 이슬람 자유주의자들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사우디의 종교 개혁을 주창하였지만, 이것이 살라피주의나 와하비주의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와하비주의의 수정과 변화를 추구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관행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사우디의 이슬람 자유주의 개혁운동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공식화되었으며, 연합세력을 형성하였고, 정부에 다양한 요구를 하였다. 사우디의 순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자유주의 지식인 연합은 2003년 “조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 현장에서 권력분리, 법치국가 건설, 지역과 종족과 신앙의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 선거를 통한 국가 및 지역 의회 구성(majlis al-shura), 진정한 시민 사회의 실현을 위한 표현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하였다(Alterman & McCants, 150). 사실 이런 요구는 사우디의 전통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급진적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당시 왕세자였던 압둘라(Abdullah)는 이를 수용하였다. 당시 사우디 정부는 정치적으로 왕권 유지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친정부 세력으로 간주되었던 자유주의 개혁운동 세력의 일부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2. 당근과 채찍 정책: MB와 사흐와 운동

이집트 MB는 1937년 사우디 왕국에 비공식적으로 지부를 설립하였으며, 사우디 정부는 이들과 모호하지만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1936년 이집트 MB 창설자 하산 알 바나(Hassan al-Banna)는 왕국의 새로운 통치자로부터 지부 설립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였으며, 이때부터 사우디와 MB의 상호관계가 시작되었다. 이 당시 MB는 사우디의 메카와 메디나 순례를

세력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간주하였다. 사우디 국왕은 MB의 공개적 지지자 확보를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기회는 허용하였다(William McCants, January 2007, 140-143).

사우디 정권과 이집트 MB의 긍정적 관계는 1950년대 사우디가 이집트와 시리아 등지로부터 수 만 명의 MB 활동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4년 이집트의 가말 압드 알 나시르(Gamal Abd al-Nasir) 대통령이 MB를 탄압하자 사우디 정부는 MB 망명자들을 환영하였으며, 고위 지도자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Ibid).<sup>4)</sup> 사우디에서 MB의 영향력 확대는 사우디 이슬람의 정치화로 이어졌으며, 사우디 이슬람주의 운동의 등장은 사흐와 운동으로 나타났다. 사흐와 운동은 MB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수루리(Sururi) 세력의 등장과 사우디 MB(al-Ikhwan al-Muslimun al-Saudiyyun)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집트 MB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사우디 정부는 MB 세력 중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왕국의 교육 제도를 개선하였고, 재정 구조를 건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MB는 사우디의 교육 제도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사우디 정치 이슬람의 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sup>5)</sup> MB의 영향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등장한 사흐와 운동이었다.

사흐와 운동과 이집트 MB 망명자들, 그리고 사우디 정권 사이의 밀착 관계는 적어도 30년 간 지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걸프 전쟁은 이들 사이의 관계를 긴장관계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사우디의 MB는 이라크의

4) 이집트 MB 지도자들 중 가장 먼저 사우디에 도착한 사람은 마나 알 까탄(Manna al-Qattan)이었다. 그는 이슬람 학자였으며, 1953년 사우디에 도착하여 종교 학교 설립과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9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우디 MB의 수장 역할을 하였으며, 사우디 정부와 이집트 MB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하였다. 그는 내무장관 나이프(Naif) 왕자, 부장관 아흐마드 빈 압드 알 아지즈 왕자, 그리고 리야드 주지사였던 왕세자 살만 빈 압드 알 아지즈 왕자 등과 자주 만나 소통하였다.

5) 이집트에서 사우디로 이동한 MB 회원들은 자선단체와 선교단체를 설립하였으며, 사우디의 종교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는 이슬람개발은행(Islamic Bank for Development), 와하비 선교기구인 무슬림세계기구(Muslim World League), 세계무슬림청년회의(World Assembly of Muslim Youth) 등이 포함되었다.



쿠웨이트 침공으로 미군이 사우디 영토에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일부 MB 세력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사흐와 세력은 급진적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국내 인티파다(intifada)를 시작하였다. 이번에도 사우디 정부는 사건의 원인을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과 국정 개입에서 찾으면서 이집트 MB와 사흐와 운동의 직접 연계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사우디 정부는 이집트 MB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2002년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나이프 빈 압드 알 아지즈(Naif bin Abd al-Aziz) 왕자는 MB가 사우디에 많은 손해를 입혔으며, 국내 문제의 대부분은 MB로부터 야기되었고, MB는 왕국의 악의 근원이며 아랍 세계의 파괴자라고 말했다(Arab News, November 28, 2002). 이 문제는 2014년 다시 등장하였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칼리드 알 파이잘(Khalid al-Faysal)은 “우리는 MB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맡겼는데,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World Tribune, May 27, 2014).

1990년대 후반 사흐와 운동은 사우디의 종교적·사회적 영역에서 재등장하였지만, 이전보다 이념이 약화되었으며 운동 내부의 상호 관계도 분열되었다. 이들은 극단주의부터 자유주의, 적극적 입장부터 소극적 정적주의 입장까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이 운동에서 적극적 입장을 취하며 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던 살만 알 아우다(Salman al-'Awda)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관용을 받았으며, 이후 사우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나 비판의 목소리를 낮췄다. 그가 사우디 정부와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흐와 운동의 두 정신적 지주였던 압드 알 아지즈 이븐 바즈와 무함마드 이븐 우사이민이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사우디 정부는 사흐와 운동이 신학적으로 힘의 공백 시기를 맞이하자 이 운동의 주요 인물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사우디 정권의 합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종교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사흐와 운동이 정적주의와 중용주의를 택하면서, 사우디 왕가와 MB와 사흐와 세력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으며, 상호 네트워크도 회복되었다.



## IV. 아랍 스프링 이후 사우디의 이슬람 정책

사우디 왕가와 MB의 관계는 아랍 스프링 이후 악화되었다. 아랍 스프링은 사우디 정부에게 종교적 이념의 지속적 유지 가능성과 정치적 극단주의 세력의 호전성에 관련된 두 가지 도전을 던져주었다. 첫 번째 도전은 이집트 MB와 튀니지 엔나흐다(Ennahda)의 정치 이슬람주의가 성공한 것이었다. 두 번째 도전은 사우디 내 극단주의 이념의 강화였다. 시리아 내전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인 IS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었다. 이로 인해 IS는 군사적·이념적 측면에서 정치적 두려움의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IS의 칼리파 제국 선언은 사우디의 합법성을 위협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위 두 가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첫 번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이집트의 MB를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들의 정치 세력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테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두 번째 도전인 IS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IS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친 사우디 단체에 대한 종교 지원의 확대를 통해 IS의 종교적·이념적 주장을 부정하고 이 조직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정치적 위협과 안보 위협을 동일시하였으며, 모든 정치적 반대를 외부 세력의 국내 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우디 MB 세력과 사흐와 운동 세력은 사우디 내에서 유일하게 조직화된 집단이었으며, 대중적인 행동주의 집단이었다. 사흐와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살만 알 아우다와 나시르 알 우마르는 역내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들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사우디의 그랜드 무프티 알드 알 아지즈 알 알 шей크(Al al-Aziz Al al-Sheikh)는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발생했던 변화 요구 시위를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적·이념적 가치와 정체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이슬람의 적들에 의해 계획된 불법적 시위로 간주하였다. 이런 외중에 사흐와 운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었던 행동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은 사



우디 최초의 정치 정당을 설립하였다. 그것은 이슬람 움마당(Hizb al-Umma al-Islami, Islamic Umma Party: IUP)이었다(Alterman & McCants, 159). IUP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사우디 정부에 정치적·종교적 개혁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011년 2월 제출된 청원서에는 살만 알 아우다와 나시르 알 우마르를 포함하여 수십 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정치적 제안들 중에는 의회선거 실시와 국왕의 정치 개입 자제, 그리고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수상 임명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IUP의 청원서에 서명을 반대한 집단도 있었다. 이들은 살라피주의를 표방했던 수루리 집단이었다.<sup>6)</sup> 이들이 서명을 반대했던 이유는 청원서에 이슬람관련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일부 지지자들은 개별적으로 청원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2011년 3월 11일 리야드에서는 반정부 세력 주도의 “분노의 날”(Day of Anger)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맞서 사우디 정부는 적극적 재정지원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국왕 압둘라를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경제 지원 프로젝트를 공표하였다. 두 프로젝트를 통해 사우디 정부는 총 13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 주가는 상승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전체 노동력의 총 2/3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근로자들의 봉급을 15% 인상하였으며, 두 달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로 제공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당근 정책을 발표한 직후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고 진압하기 시작했다. 사우디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사흐와 운동의 지도자 아우다는 주간 TV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었으며, IUP 창설자 10명 중 7명이 체포되었고, 보안 당국의 색출 작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반정부 세력의 운동이 사우디 왕국을 전복시키려는 이란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Lacroix, Saudi Islamists and the Arab Spring, 13). 사우디 정부는 이슬람주의 행동가들을 외국의 첩자로 낙인찍었으며, 사우디 내에서 발생한 모든

6) 반대 세력들에 의해 수루리라고 불렸던 이 집단은 사이드 쿠티(Sayyid Qutb)과 이븐 압드 알 와합의 이념을 추종했던 이전 시리아 MB 지도자 무함마드 수루르 자인 알 아비딘(Muhammad Susur Zayn al-Abidin)의 가르침을 추종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우디 MB와 이념적·지적 계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지지자 모집, 후원, 그리고 종교 교육 등에서 MB와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종류의 반정부 운동을 테러리즘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사우디 정부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은 2014년 제정 공포된 반테러법으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사우디 정부는 국내의 모든 반정부 활동을 테러리즘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의 공포로 사우디 보안 당국은 모든 종류의 반정부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Alterman & McCants, 161).

사우디 정부는 아랍 스프링 이후 역내에서 목격되었던 정치적 변화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내의 사흐와 운동을 완벽하게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는 역으로 사흐와 운동이 사우디 정권의 이슬람주의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일깨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우디 정권은 역내에서 이슬람주의 정권이 등장하자 이를 사우디 내 이슬람주의 세력의 강화 가능성으로 해석하였다. 아랍 스프링 이후 사우디 정권의 두려움은 튀니지와 이집트의 정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사우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상황은 사우디 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사우디의 이집트 MB 지지 세력은 이집트의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환영하였는데, 이는 사우디 정권에 대한 간접적 비판과 압박을 의미하였다.

사우디와 UAE는 자국내 MB의 소요 사태와 선동뿐만 아니라 이집트 MB의 상황도 예의주시하였다. 이집트에서 MB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후 무바라크 정권의 정치세력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우디 측을 대변했던 것과는 달리 점차 중립적인 태도로 입장을 선화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이집트 MB에게 이집트 살라피주의 세력과의 권력 분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분노했으며, 이집트 MB를 본질적으로 팽창주의 조직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Alterman & McCants, 162).

무르시는 이집트 경제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고 사우디 왕가의 정치적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첫 번째 공식 방문국가를 사우디로 선택하였다. 이는 이집트가 사우디의 지지를 요청하는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이집트 MB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불신을 완화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더욱이 무르시가 이란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2



년 8월 테헤란을 방문하고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ud Ahmadijad)를 초청하자, 양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결국 사우디의 이집트 군부쿠데타에 대한 묵시적 지지로 이어졌다.

무르시 정권이 군부쿠데타로 전복되기 2개월 전 사우디 정부는 무바라크 정권 몰락 이후 약속했던 35억 달러의 지원 약속 중 불과 10억 달러만을 송금하였다. 사실 사우디 정권은 이집트 MB가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알 시시(al-Sisi)의 군부와 보안 당국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왜냐하면 사우디와 UAE는 MB를 전략적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Daily News Egypt, May 19, 2013).

사우디 정권과 MB 사이의 긴장관계는 2013년 사우디 정부가 무르시 정권을 무너뜨린 이집트의 군부쿠데타를 지지한 이후 다시 점화되었다. 사우디 정부의 관료들은 군부쿠데타 개시 몇 주 전에 이집트 군부 및 반 MB 성향의 이집트 사업가들과 접촉하였으며, 무르시의 축출을 환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tephane Lacroix, March 20, 2014). 하지만 이런 사우디의 입장은 MB를 국내 외 문제에 적극 활용했던 사우디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일종의 반전으로 간주되었다. UAE는 2011년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의 MB에 대한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였다. 반면에 사우디 정부는 MB에 대한 노골적 비난이나 공격을 피해왔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MB 문제를 국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역내 안보 문제에도 동시에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두 문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군부쿠데타 직후 사우디 정부는 이집트 시시 정권에게 5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UAE는 30억 달러 그리고 쿠웨이트는 4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사우디 전 국왕 압둘라는 무르시 축출을 반대하는 MB 세력들에 대한 군부의 폭력적 진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이를 테러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평가하였다(Tariq al-Homayed, August 19, 2013). 사우디의 MB 지지 세력들과 동조자들은 사우디 정부의 군부쿠데타 지지를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이집트 MB에 동정적이었던 살만 알 아우다도 사우디 정부를 비난하였다. MB의 정신적 지도자 유수프 알



까라다위(Yusuf al-Qaradawi)도 이집트 이슬람주의 정권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사우디의 동맹국 UAE를 비난하였다(Al Jazeera, February 2, 2014). 사우디가 MB를 테러 단체로 공식 발표하기 전 사우디 정부의 반 MB 정책은 이미 사우디 내로 널리 퍼져있었다.

아랍 스프링 이후 사우디 정권의 탄압에 직면한 또 다른 집단은 사우디 시아파 집단이었다. 사우디 정권은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시아파 지도자들에게 온건한 양보 정책을 마지못해 추진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시아파 청년층 행동주의자들에게 불만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다. 시아파 행동주의자들은 정치적 변화를 촉구하는 반정부 운동을 추진하였지만, 불신을 받고 있는 시아파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귀에 거슬리는 말만 되풀이하였다(Fred Wehrey, December 11, 2012). 바레인과 시리아의 상황들은 사우디 내 순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시아파와 순니파 행동주의자들은 2011년 3월 11일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시아파 일부가 지나치게 분파적 요구를 공식화하기 시작하면서 무산되었다. 사우디에서 순니파와 시아파의 상호 불신은 순니파 사우디가 시아파 바레인의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을 때, 시아파 헤즈볼라가 시리아의 순니파 반정부 세력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을 때, 그리고 사우디 동부지역의 시아파 청년들이 시리아에서 시아파 모병 운동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전파되었을 때 더욱 심화되었다. 사우디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시아파의 항의 시위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후 1980년대에 동부지역에서 발생했던 항의 시위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사우디 보안 당국은 동부지역의 사이파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소요 발생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아파 행동주의자들은 사우디 정부가 왕실에 대한 순니파의 불만과 분노를 시아파에 대한 탄압과 통제로 화풀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14년 초 사우디 동부지역에서는 시아파 마을이 파괴되고 마을 주민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록 이 사건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없었지만, 이는 사우디 순니파 정부의 시아파 항의 시위자



들에 대한 보복 사건이었다(Finland Times, February 21, 2014). 이후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은 점증되었다. 이는 시아파 급진 세력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과 반 사우디 극단주의 시아파 세력들의 위협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사우디 정부가 순니파와 시아파 반정부 주요 인사들을 탄압하자 사우디 내에서는 비난과 동조 입장이 동시에 표출되었다. 사우디 살라피주의 수루리 운동의 지도자이자 반시아파 운동가였던 나시르 알 우마르는 순니파 무슬림들에게 사우디 정부를 비난하기보다 이라크에서 시아파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인들과 투쟁해야 한다고 선동하였다(Alterman & McCants, 166). 하지만 그는 사우디 국내 정치의 변화와 개혁에는 침묵을 지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집트와 튀니지의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사우디 정부가 무르시를 축출한 이집트의 2013년 군부쿠데타를 지지하자 암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집트 라비아 알 아다위야 광장 학살 사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슬림에 대한 불법적 학살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Ibid.). 2013년 여름 그를 포함한 주요 사흐와 운동 지도자들은 사우디 정부의 군부쿠데타에 대한 지지를 비난하며 청원서에 서명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이집트 상황을 민주적으로 당선된 무슬림 통치자에게 반기를 들고 폭력을 사용하여 정권을 전복시킨 종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 또는 이슬람주의 흐름과 이슬람에 반대하는 서구화 흐름 사이의 종교적-이념적 갈등이라고 해석한 반면, 다른 일부는 선거 민주주의를 방어할 것인가 무력화시킬 것인가의 정치적 문제로 해석하였다. 2013년 8월 8일 사우디 MB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56명의 종교 원로들은 이집트 군부가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한 것과 사우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쿠데타를 감행한 것에 대해 비난했으며, 2014년 1월 13일에는 군부쿠데타를 지지했던 이집트 살라피주의 정당 누르당(Hizb al-Nur)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아랍 스프링 이후 사우디 정부의 MB와 사흐와 운동에 대한 반응과 대응은

사우디 왕가의 정치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우디 정부의 대응은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예상 밖으로 강했으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2014년 2월 4일 왕의 칙령을 발표하였다(Stephane Lacroix, March 20, 2014). 왕의 칙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 국내에서 극단주의 세력으로 판명된 집단이나 역대 및 국제적 수준에서 테러 집단의 범주에 속하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지원하는 자들은 징역형에 처한다.

둘째, 극단주의 사상이나 행동 양태에 동정심을 보이거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경제적·정신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말이나 글로 지지 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는 모두 징역형에 처한다.

셋째, 위와 같은 행위들은 3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우디 국왕의 칙령으로 드러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칙령은 이집트 MB 운동을 테러주의 운동으로 낙인찍는데 동의하였다.

둘째, 칙령은 MB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의 표현마저도 금지시켰다.

셋째, 칙령은 사흐와 운동을 수행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넷째, 칙령은 사우디 MB 집단뿐만 아니라 수루리 집단도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

국왕의 칙령에 근거하여, 사우디 내무성은 2014년 3월 7일 성명을 통해 사흐와 집단, 사우디 MB 집단, 그리고 수루리 집단 등을 테러 집단으로 공개하였으며, 이들의 이념과 말과 행동을 따르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모든 집단을 테러주의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 V. 사우디의 극단주의 IS에 대항한 반테러 정책

2014년 8월 압둘라 전 국왕은 친정부 주류 종교학자들이 I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면전에서 질책하였다. 이후 주류 종교학자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IS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11월 IS가 사우디 정부에 대항한 공격을 선포할 때까지, 사우디 정부는 MB나 IS 등 극단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이들 세력이 사우디 정권에 정치적으로 대항하거나 도전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탄압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우디와 카타르가 시리아 반정부 세력의 지역적·이념적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시리아 순니파 반정부 세력들의 응집력과 결집력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2012년 초 아사드 정권에 대항한 반정부 무력 투쟁을 지지하며 단일 전선을 형성했던 두 국가는 어떤 세력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였다 (Al-Sharq al-Awsat, February 25, 2012). 카타르는 외부의 반정부 세력들을 지원 하면서 범국가적 이슬람주의 세력인 MB나 살라피주의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선호한 반면, 사우디는 시리아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비 이슬람주의 세력이나 온건 이슬람주의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면서 자유시리아군대(Free Syrian Army: FSA)와 연계하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 시리아의 MB는 시리아 망명자 조직인 시리아국민회의(Syrian National Council: SNC)를 장악하였는데, 이는 카타르의 적극적 지원과 사우디의 초기 대처 미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우디는 초기에 망명자 반정부 조직을 형성하면서 카타르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Alterman & McCants, 168).

사우디 정부는 시리아의 반정부 세력들을 지원하는데 긍정적 입장보다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왜냐하면 이들 중 일부 사우디 사람들이 언젠가 사우디 왕국으로 귀환하여 내부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는 정치적 입장에 의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사우디 내 일부 세력들은 시리아 내 극단주의 세력들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결코 걱정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시아파에 대한 도전이라는 종교적·분파적 입장에 의한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는 정치적 입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세력에 동참하여 전투에 참여하려는 사우디 내 세력들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으며, 개인적 통로를 통해 시리아 반정부 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세력들의 송금도 금지시켰다. 2012년 6월 사우디 고위종교학자회의(Senior Ulama Council)는 사우디 대중들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공표하였다. 이를 근거로 사우디 내무부 보안 담당자는 2012년 9월 고위종교학자회의의 금지안과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사우디 고위 성직자들은 사우디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사우디 정부는 종교 학자들에게 정부의 금지안에 도전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우디 최고 무프티 압드 알 아지즈 알 알 쉐이크는 2013년 10월 위에서 언급된 금지안을 반복하였으며,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는 비주류 종교학자들을 비난하였다(Fred Wehrey, June 14, 2012).

사우디 정부는 시리아의 극단주의 폭력 세력들에게 사우디인들의 개인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2년 사우디 국왕 압둘라라는 종교학자들이 국가의 허락 없이 시리아 극단주의 세력들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에 반발해 살만 알 아우다는 추종자들에게 정부의 금지 정책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으며, 성직자 무함마드 알 아리피는 정부가 누스라 전선(Jabhat al-Nusra: JN)를 포함한 시리아 내 극단주의 세력들에 대한 모금 운동을 금지한다는 서약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2012년 여름 압둘라 국왕은 정부 주도의 시리아 기금 모금 운동을 독려했으며, 이렇게 모은 자금들은 내무성에 의해 분산 지원되었다. 2013년 겨울 사우디 내무성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기금 모금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으며, 불법적인 기부자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Agence France Press, December 30, 2013). 이와 함께 국왕은 시리아 등 해외 전투에 참여하는 자에게



최고 20년 형을 선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Al Jazeera, April 24, 2014).

2014년 5월 현재 약 2000 이상의 사우디 전사들이 시리아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우디 청년들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다양했다. 일부 청년들은 종교적 동기에 의해 시리아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시리아 전투를 최후 심판의 날에 이르는 마지막 전투라고 간주하였다. 또 다른 청년들은 학문적 동기에 의해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사우디 이슬람 학계의 고위지도층에 합류하기 위해 학문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신들의 이슬람주의에 대한 소신과 확신을 시리아 전투 참여를 통해 입증하기를 원했다. 사우디 전투에 참여했던 상당수 사우디 청년들은 사우디 중부지역의 부라이다(Burayda) 집단 출신이었다. 이 집단은 수십 년 동안 보수적 이슬람 행동주의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였다. 이들의 상당수는 결코 극단주의자들이 아니었지만, 종교적으로 사우디 정부를 극도로 혐오하였다. 이들은 성직자들의 말에 의해 고무되었는데, 성직자들은 사우디 정부의 금지안을 시리아 전투에 참여하려는 사우디 청년층에 대항한 금지안으로 간주하였으며, 시리아 전투에 참여한 자들을 순교자들로 간주하였다(Alterman & McCants, 170).

지금까지 사우디 정부는 반테러 정책을 취하면서 모순된 입장을 보여 왔다. 사우디가 반테러 정책에서 이중적 모습을 보였던 원인은 사우디 왕가의 분열 때문이었다. 사우디 왕가에서는 최근까지 사우디 파일을 관리했던 매파 반다르(Bandar) 왕자와 반다르가 병으로 떨어진 후 직무를 이어받은 온건파 무함마드 이븐 나이프(Muhammad ibn Naif) 왕자 사이의 갈등이 목격되었다(Bruce Riedel, February 15, 2014). 반다르 왕자는 사우디 정부에게 시리아 전사들을 지원하는 개인적 노력에 대해 눈감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에 이븐 나이프 왕자는 시리아 전사들에 대한 지원이 궁극적으로 사우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반다르는 건강을 회복한 이후 다시 시리아 자금 지원 문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최근에 반다르가 사우디 정보 수장직으로부터 물러났다는 사실은 사우디 정부의 반테러 정책 수립에서 분파적 또는 당파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Khalil al-Harb, May 15,

2014). 이는 사우디 정부의 반테러 정책이 사우디 국내의 상황이나 중동 지역의 역내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극단주의 성향을 띠고 등장한 IS가 이 지역의 핵심적인 근심거리로 발전하자 사우디 정부의 이 집단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다. 사우디 정부는 종교학자들을 동원하여 IS에 대한 지원을 불법으로 간주하였으며, IS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2014년 8월 사우디 그랜드 무프티는 IS와 AQ를 이슬람의 최우선 적으로 간주하였으며, 극단주의와 호전주의와 테러주의를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부패의 근원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그는 두 집단이 무슬림들을 희생 제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과 위배되며 이슬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집단이라고 비난하였다(Reuters, August 19, 2014). 그는 IS를 초기 이슬람의 대표적 극단주의 운동이었던 카리지파 운동의 21세기 부활로 간주하였다. 이는 그가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 무슬림 공동체 전체에 대한 통제권과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IS의 논리를 부정하였으며, IS를 공식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슬람의 적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랜드 무프티가 IS를 공격하자, IS는 사우디 왕국의 문제를 역사적·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IS는 자신들이 와하비주의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이와 함께 IS는 누가 정당한 와하비주의의 계승자인가라는 문제와 IS와 사우디 중 누가 진정한 이슬람국가의 실현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우디 왕국과 IS 사이의 와하비주의 논쟁은 사우디가 IS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이슬람국가의 정통성과 합법성 시비로 발전하여 사우디 왕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사우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차단하고 사우디 내 IS 지지 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심각한 안보문제를 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사우디 왕국은 와하비주의를 바탕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념적으로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순니파 이슬람의 배타주의를 고수하였다. 이런 원칙은 사회적 질서 확립, 법적 제도 수립, 교육 체계 수립, 그리고 종교 제도 정착에도 적용되었다.



IS는 사우디의 와하비주의를 추종하고 있으며, 1단계 사우디-와하비 연계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하드 팽창주의와 시아파에 대한 분파적 적대감이 내재되어 있었다.<sup>7)</sup> 이슬람국가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사우디 왕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IS는 이미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선언하였으며, 사우디를 3개 주로 재편성하였고<sup>8)</sup>, 2014년 11월 이후 19차례의 극단적 공격을 감행하였다. IS의 등장과 사우디에 대한 IS의 공격은 와하비주의의 성격에 대한 사우디의 내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S는 자신들을 와하비주의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IS가 4단계 와하비주의 국가임을 의미하였다. IS가 말하는 4단계 와하비주의 국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의 와하비주의는 사우디 국가 수립의 1단계 와하비주의와 유사하다. 2014년 IS는 와하비주의 국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투르키 알 빈알리는 IS의 공식 무프티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 IS는 와하비주의에 입각하여 배신한 순니파 무슬림이나 시아파를 타크피르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라비아 반도에서 타우히드를 부정하는 이교도(shirk)를 축출하기 위한 지하드를 공식 선언하였다.

셋째, IS는 사우드 가문이 와하비주의와 동맹관계를 맺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수립한 후 아라비아 반도에 시아파의 거주를 허용한 것은 와하비주의에 대한 배신이며 불신앙과 불경의 사례라고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IS는 사우드 가문을 제2의 살룰(Salul)<sup>9)</sup>이라고 공격하였다.

7) 1단계 와하비-사우디 연계과정은 1744년부터 1818년까지의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와 이븐 압드 알 와합은 정치종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군사 정복을 통해 tawhid 전파에 합의하였고, 이교도 및 우상숭배자 등을 shirk로 척결하면서 공격적 종교 전쟁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순니파 무슬림과 시아파 무슬림들을 타크피르로 간주하였으며, 지하드를 통한 국경 없는 팽창주의 정책을 실행하였다. 와하비-사우디 세력은 1791년 동부지역 시아파 rafida들을 공격하여 1500명이 사망하였으며, 1802년 이라크 카르발라 시아파를 공격하여 2000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두 세력은 1805년 메카와 메디나를 정복하여 두 성지의 보호자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1단계 와하비-사우디 세력은 1818년 이집트 무함마드 알리 군대에 패배하여 공식적인 국가 수립에 실패하였다.

8) 3개의 주는 사우디 중부 지역의 나즈드(Najd) 주, 서부 지역의 히자즈(Hijaz) 주, 그리고 동부 지역의 바흐라인(Bahrain) 주를 의미하였다. 이중 바흐라인 주는 현재의 바레인 국가를 제외한 아라비아 반도 동부 지역을 지칭하는 옛 명칭이었다.



IS는 2014년 11월 사우디 지하드주의자들로부터 충성의 맹세를 받았다. 이후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는 사우디를 IS의 새로운 주(wilayat)로 선언하였다. 바그다디는 사우디 추종자들에게 이라크와 시리아로의 히즈라(hijra)를 요청하였지만, 사우디 추종자들은 히즈라 대신 사우디 내에서의 IS 세력 강화를 선호하였다. 2014년 11월 이후 사우디 내 IS 활동은 적극적인 모습을 띠었다. 이들의 공격은 주로 소수인 시아파로 집중되었으며, 사우디 보안당국에 대한 공격도 빈번해졌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차례의 IS관련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일자	내용
2014/11/03	-동부지역 후푸프 근처 달와 시아파 모스크 공격. 7명 사망, 7명 부상
2014/11/22	-리야드에서 네덜란드 시민 공격
2015/1/5	-이라크-사우디 국경 아라르 지역 공격. 7명 사망
2015/3/29	-리야드 서부지역에서 보안군 공격. 2명 부상
2015/4/8	-리야드 동부지역에서 보안군 공격. 2명 사망
2015/5/8	-리야드 남부지역에서 보안군 공격. 1명 사망
2015/5/22	-동부지역 쿠다이의 시아파 모스크 자살폭탄 공격. 21명 사망, 100명 이상 부상
2015/5/29	-동부지역 담맘의 시아파 모스크 자살폭탄 공격. 3명 사망, 4명 부상
2015/6/26	-쿠웨이트 시에서 시아파 모스크 자살폭탄 공격. 27명 사망, 200명 이상 부상
2015/7/4	-타이프 공격. 2명 사망, 3명 체포
2015/7/14	-아브하 근처 무사이트 공격. 2명 사망, 2명 부상
2015/7/16	-리야드 공격. 2명 부상
2015/8/6	-아시르 모스크 폭탄공격. 15명 사망, 33명 부상

9) 압둘라 이븐 우바이이 살룰(d.631)은 메디나의 지도자들 중 하나였으며, 메디나 바누 카즈라즈 (Banu Khazraj) 부족의 장이었다. 그는 메디나의 왕을 꿈꾸고 있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622년 메디나 부족들의 요청을 받고 히즈라를 감행하였다.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도착하여 갈등을 해결한 직후 이븐 우바이이는 무슬림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메디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그는 무함마드와 여러 차례 갈등을 반복하며 불화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위선자(munafiq)로 낙인찍혔으며, 위선자들의 지도자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무함마드가 진행했던 유대인과의 전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으며, 위기상황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구출되기도 하였다. 그가 위선자로 낙인찍힌 것은 무슬림이 된 이후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명령을 거부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지속했기 때문이었다.



2015/9/23	-하일 경찰서 근처에서 공격 발생. 5명 사망
2015/10/15	-동부지역 사이하트 시아파 모스크 공격. 5명 사망, 9명 부상
2015/10/26	-나즈란의 다흐바 시아파 모스크 공격. 1명 사망, 19명 부상
2016/7/4	-제다 미국 영사관 자살 폭탄 테러. 보안요원 2명 부상
2016/7/4	-메디나 예언자 사원 근처 자살 폭탄 테러. 보안요원 4명 사망, 5명 부상
2016/7/4	-카티프 시아파 지역 자살 폭탄 테러. 인명피해 없음

사우디 내무성은 2015년 3월 사우디인 2000명 이상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지하드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하드 활동을 마치고 사우디로 귀국하였다고 말했다(Ibid., 16). 2013년 11월과 2015년 7월 사이 시리아와 이라크로 떠나려던 사우디인 4000명 이상이 사우디 보안당국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다(Angus McDowall, July 6, 2015).

IS를 지지하고 있는 사우디 지지자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청년층이었으며, 주로 아라비아 반도 중부의 리야드와 까심(Qasim) 지역 출신이었다. 2015년 IS의 아라비아 반도 지부의 명으로 자살 폭탄테러를 저지른 6명의 사우디 인들은 모두 아라비아 반도 중부지역 출신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우디 보안당국은 가장 대규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야드와 까심 지역의 IS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파괴하였다.

한편 IS를 지지하고 있는 사우디의 핵심 집단은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까심 지역 이슬람 네트워크의 최고 지도자인 70대 맹인 하마드 알 라이이스(Hamad al-Rayis)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슈아비비 운동과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수감 중이다. 하마드보다 젊은 학자들 중에는 40대 중반인 파리스 알 자흐라니(Faris al-Zahrani), 50대 후반인 하마드 알 후마이디(Hamad al-Hudayni), 그리고 40대 후반인 나시르 알 파흐드(Nasir al-Fahd)가 있다. 이들 중 앞의 두 사람은 2016년 1월 처형되었다. 또한 젊은 층 중에서도 IS 지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직 보건성 직원 압드 알 라흐만 알 무질(Abd al-Raman al-Mujil)과 이라크에서 AQ와 지하드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압달라 알 파이즈(Abdallah al-Fayiz)가 있다. 위 두 사람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IS 지도자들

과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le Bunzel, 17).

사우디에서의 IS 공격작전은 현재까지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IS 지도자들은 사우디 내 IS 지지자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2000년대 중반 AQAP의 폭력 사태와 공격 이후 사우디 보안당국의 반테러 시스템과 인프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 둘째, 사우디 내 IS를 통제할 카리스마 지도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 셋째, 전통적으로 사우디의 지하드는 국내의 지하드보다는 해외의 지하드(jihad against far enemy)를 지원하고 선호했다는 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내 IS의 공격은 점증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사우디 IS가 동부 지역 시아파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의 순니파 사우디 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시리아와 이라크의 IS 세력이 점차 밀리고 있으며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외부의 집중 공격으로 퇴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시아파에 대한 공격으로 사우디인들의 동조를 더 많이 얻고 있다는 점과 시리아와 이라크의 IS 지도자들이 주요 거점 지역의 함락으로 본거지를 잃을 경우 주변 국가로 공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IS 지도자들은 2007년 AQ의 AQAP가 사우디 보안당국의 압박에 의해 사우디에서 예멘으로 본거지를 이전했지만, IS는 사우디 내에서 동조 및 지지 세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QAP보다 더 오래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2014년 11월 바그다드는 사우디 내 IS 지지자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라고 조언하였다. 하지만 2015년 12월 IS는 아라비아 지역에서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2014년 이후 사우디 내 IS 추종자들의 공격 목표는 두 가지로 집중되고 있다. 하나는 와하비주의가 주창했던 순나파를 거부하고 있는 시아파 라피다(Radifa)에 대한 공격이며, 다른 하나는 살룰(Salul)이라 불리고 있는 사우드 왕가와 이를 지지하고 있는 보안당국에 대한 공격이다. 사우디 내 IS 공격의 특징은 보안군 사망자보다 시아파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는 점과 공격이 주로 동부지역 시아파 거주지로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우디 내 IS 활동 및 폭탄테러 공격은 거의 목격되지 않았다. 이는 IS 지도자의 인내하라는 메시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사우디 보안당국이 IS 확산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재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반테러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7월 4일 사우디의 제다, 카티프, 메디나에서 동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다. 3건의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IS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IS 추종 세력들이 자행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이 공격들은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과 사우디 내 테러가 사우디 국내 정치적·종교적·사회적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IS의 사우디 내 활동과 관련하여, 사우디 내 시아파 거주 인정 및 종교 활동 허용, 그리고 사우디 왕가의 위선에 대한 비난이 지속된다면 사우디 내 IS 활동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의 현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와하비주의의 의미 있는 개혁이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거의 힘들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의 반테러 정책과 함께 2016년 초부터 사우디 내 자유주의 세력의 와하비주의에 대한 개혁 요구와 비판의 목소리가 정부의 묵인 하에 이전보다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사우디의 새로운 정치 지도력은 다양한 세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통합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반면, 종교 지도력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며 시아파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사우디에서는 와하비주의의 진정성과 시아파에 대한 처리 문제를 대상으로 IS 세력과 사우디 종교 세력 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VI. 결론

지금까지 사우디 정부는 반정부 세력이나 정부 정책 중상비방자를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사우디 왕가가 종교적 극단주의를 실제로 걱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조장했던 국내의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 관점에서 사우디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와하비주의는 온건주의가 아니었다. 사우디 정권이 걱정하고 있는 실질적 문제는 사우디 왕국의 지속적인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이다. 이런 이유로 사우디 정부는 순니파든 시아파든 정권에 도전하는 국내 반정부 인사들에게 거의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으며, 이슬람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IS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사우디 정권을 가장 걱정스럽게 만들고 위협하는 요소는 국내의 반정부 세력과 IS 세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우디 정부가 걱정하는 요소가 종교적 요소가 아니라 정치적 요소임을 의미한다.

사우디 정부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을 테러 세력으로 몰았으며, 반테러법이라는 법적 통제수단을 마련하였고, 이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에서 MB가 정치적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이 사우디 동맹국들로 영향력을 확산시키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우디 MB 세력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한편 사우디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비폭력주의를 표방했던 살라피주의 세력은 사우디 내에서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지 않았다. 이는 사우디의 살라피주의 세력이 이집트의 MB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우디 왕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래 기다릴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사우디의 이웃 국가인 이라크에서는 IS가 처음에 상당한 영토를 장악하며 영향력을 확대하였지만, 점차 다국적군의 공습에 밀리고 있으며, 점령지를 빼앗기고 있다. 최근 들어 사우디 인들은 IS 문제를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테러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사우디는 IS에 의해 가해지고 있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IS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반테러 방어의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의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이 사우디에 일단의 무장 세력을 파견한다면 사우디는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고 반정부 세력들의 폭동과 반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반테러 정책을 수립하고 최신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다.

현재 사우디 정부와 IS가 와하비주의를 둘러싼 치열한 이념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우디 정부는 IS에 대해 긴박한 정보음을 아직 울리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우디에서 IS는 타크피르의 대상인 시아파를 극단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조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IS의 공격이 사우드 가문의 정치권력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우디의 통치 가문은 IS를 단순한 귀찮은 존재로 간주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위협으로는 간주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미래에 IS가 광대한 새로운 영토를 장악하고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거나 이라크와 시리아로부터 영토를 빼앗겨 주변부로 밀리게 된다면, 사우디에 대한 IS의 위협은 심화될 것이며 IS의 사우디에 대한 공격 시기도 빨라질 것이다.

사우디가 IS의 세력 확장과 도전을 궁극적으로 격퇴할 것이라는 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IS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매우 높으며, 국내 친 IS 세력이나 반정부 세력들을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며 반테러 정책을 시스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IS가 사우디를 침공한다 하더라도, 왕국 내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사우디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치를 개방하고 자유주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치적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사우디 왕가의 주요 지지자들은 국내 비판 세력들에게 자유를 확대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지지자들은 주변 동맹국들에서 목격되었던 정치적 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압력도 자

신들을 결코 전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들의 압력에 굴복해 정치적 개혁을 단행하느니, 차라리 반정부 비판 세력들을 더욱 강력하게 억압하고 질식시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주제어: 사우디, 와하비주의, 극단주의, 반테러, 무슬림형제단, 사흐와 운동, IS]



## 참고문헌

- 황병하(2015).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미래에 대한 고찰”,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2호.
- \_\_\_\_\_(2015). “알-시시의 이슬람 정책과 무슬림형제단의 대응 전략”, 『중동문제연구』 제14권 2호.
- \_\_\_\_\_(2016). “아랍 스프링 전후 사우디 청년층의 변화 요구와 향후 전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1집.
- \_\_\_\_\_(2016). “아랍 스프링 이후 중동의 신 극단주의 등장에 대한 연구”, 『중동문제연구』 제15권 1호.
- Al Jazeera(April 24, 2014). "Saudi Arabia Jails 13 for Security Offences", <http://www.aljazeera.com/news/middleeast/2014/04/saudi-jails-13-security-offences-20144145389450328.html>(Search: 2016.5.3.).
- al-Harb, Khalil(May 15, 2014). "Al-Mufaja'at al-Sa'udiyya tatawali fusulan", As-Safir, <http://www.assafir.com/Article/1/350659>(Search: 2016.5.21.).
- al-Homayed, Tariq(August 19, 2013). “Opinion: King Abdullah’s Egypt Speech Was Like Surgeon’s Scalpel”, Ashraq Al-Awsat, <http://www.aawsat.net/2013/08/article55314019>(Search: 2016.5.3.).
- al-Rasheed, Madawi(2007). Contesting the Saudi State: Islamic Voices from a new Gen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7(Search: 2016.5.17.).
- Al-Sharq al-Awsat(February 25, 2012). "Syrian Opposition Praises Saudi FM Position", <http://www.aawsat.net/2012/02/article55243080> (Search: 2016.5.17.).
- Alterman, Jon & William MaCants(2015). “Saudi Arabia: Islamists Rising and Falling”, Religious Radicalism after the Arab Spring, CSIS(Search: 2016.5.17.).
- Barrett, Richard(June 13, 2014). 『Foreign Fighters in Syria』, Soufan



- Group(Search: 2016.5.17.).
- Boghardt, Lori Plotkin(April 12, 2013). "The Muslim Brotherhood on Trial in the UA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http://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view/the-muslim-brotherhood-on-trial-in-the-uae>(Search: 2016.5.17.).
- Bunzel, Cole(February 18, 2016). "The Kingdom and the Caliphate: Duel of the Islamic State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2016.5.21.)
- CNN Arabic(October 21, 2014). "Suhuf: Qarar bi-waqf al-'Arafi 'an al-tadris wa jasl li-l-'ashaq fi al-Basra"(Search: 2016.5.3.).
- Daily News Egypt(May 19, 2013). "Finance Minister Requests Aid from Saudi Arabia(Search: 2016.5.17.).
- Entous, Adam, Julian Barbes, Jay Solomon(February 4, 2011). "U.S. Pressure on Mubarak Opens a Rift with Arab Allies", Wall Street Journal(Search: 2016.5.17.).
- FT Magazine(May 17, 2013). "How Qatar Seized Control of the Syrian Revolution" (Search: 2016.5.3.).
- Gulf News(June 2, 2014). "Muslim Brotherhood-Affiliated Authors' Books Pulled in Saudi Arabia(Search: 2016.5.17.).
- Haykal, Bernard(2009). "On the nature of Salafi thought and action", 『Global Salafism: Islam's New Religious Movement』, ed. Roel Meijer,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33-57(Search: 2016.5.17.).
- Hegghammer, Thomas(2008). "Islamist Violence and Regime Stability in Saudi Arabia", International Affairs 84, no.4, 709(Search: 2016.5.3.).
- Lacroix, Stephane(2004). "Between Islamists and Liberals: Saudi Arabia's New 'Islam Liberal' Reformists", *Middle East Journal* 58, no.3, 345-65(Search: 2016.5.3.).
- \_\_\_\_\_ (2011). "Awakening Islam: The Politics of Religious Dissent in



- Contemporary Saudi Arabia”, trans. George Holoc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85(Search: 2016.5.3.).
- \_\_\_\_\_ (March 20, 2014). “Saudi Arabia’s Muslim Brotherhood Predicament”, Washington Post(Search: 2016.5.3.).
- Levy, Rachel(June 23, 2014). "Could Saudi Arabia Be the Next ISIS Conquest?", Vocative(Search: 2016.5.17.).
- McCants, William(January 2007). “Derivatives of the Muslim Brotherhood: Saudi Arabia”, Center for International Issues Research, 140-143.
- McDowall, Angus(July 6, 2015). "Inside the Saudi Prison: That's Home to New Wave of Jihadis", Reuters(Search: 2016.5.17.).
- Toumi, Habib(August 18, 2013). “TV Manager Fired over Muslim Brotherhood Links”, Gulf News(Search: 2016.5.17.).
- Trofimov, Yaroslav(2007). *The Siege of Mecca*, New York: Doubleday, 85-86 (Search: 2016.5.3.).
- Wehrey, Fred(December 11, 2012). “Shia Days of Rage: The Roots of Radicalism in Saudi Arabia”, Foreign Affairs(Search: 2016.5.17.).
- \_\_\_\_\_ (June 14, 2012). "Saudi Arabia Reins in Its Clerics on Syri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Search: 2016.5.17.).
- Weinberg, David(December 5, 2013). "Saudi Clerics Endorse Jihadists in Syria",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Washington DC, <http://defenddemocracy.org/media-hit/saudi-clerics-endorse-jihadists-in-syria>(Search: 2016.5.3.).
- World Tribune(May 27, 2014). “Saudis Arrest Professors Linked to Brotherhood” (Search: 2016.5.3.).
- <http://pomeps.org/2014/03/20/saudi-arabias-muslim-brotherhood-predicament>(Search: 2016.5.3.).
- <http://www.aaswat.net/2014/05/article55332025>(Search: 2016.5.3.).



- <http://www.arabnews.com/node/226291>(Search: 2016.5.3.).
- <http://arabic.cnn.com/middleeast/2014/10/21/arabic-papers>(Search: 2016.5.17.).
- <http://carnegieendowment.org/2016/02/18/kingdom-and-caliphate-duel-of-islamic-states>  
(Search: 2016.5.3.).
- <http://www.dailynewsegypt.com/2013/05/19/finance-minister-requests-aid-from-saudi-arabia>(Search: 2016.5.17.).
- <http://online.wsj.com/articles/SB10001424052748704376104576122610828648254>(Search: 2016.5.3.).
- <http://gulfnnews.com/news/gulf/saudi-arabia/muslim-brotherhood-affiliated-authors-books-pulled-in-saudi-arabia-1.1342080>.(Search: 2016.5.3.)
-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monkey-cage/wp/2014/03/20/saudi-arabias-muslim-brotherhood-predicament>(Search: 2016.5.3.).
- <http://www.vocative.com/world/iraq-world/saudi-arabia-next-isis-conquest>
- <http://www.reuters.com/article/us-saudi-security-prison-idUSKCN0PG1CO20150706>(Search: 2016.5.3.).
- <http://www.al-monitor.com/pulse/originals/2014/02/saudi-arabia-obama-syria-fighters.html>(Search: 2016.5.3.).
-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138498>(Search: 2016.5.17.).
- <http://carnegieendowment.org/2012/06/14/saudi-arabia-reins-in-its-clerics-on-syria/bulo>(Search: 2016.5.17.).
- <http://www.worldtribune.com/2014/05/27/saudi-arrests-university-professors-linked-muslim-brotherhood>(Search: 2016.5.17.).



108 | 한국중등학회논문총 | 제37권 제2호 [2016. 10]

논문접수일: 2016년 09월 2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0월 04일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19일